

사무국 조직 확대 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기획 조사팀 신설 등 사무국 조직을 1부 2과에서 관리운영팀, 기획조사팀, 심의지원팀의 1국 3팀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번 사무국 조직의 확대 개편은 정보 통신 윤리 의식을 적극 제고시킬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관리운영 팀은 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위원회 운영, 심포지엄, 세미나 등 교육, 홍보, 국제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정보 통신 윤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 윤리 의식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기획 조사팀은 심의 관련 실태 조사, 분석, 연구, 심의 관련 법, 제도,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 정보 통신 윤리가 정보 사회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 조성 및 심의 업무에 대한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심의지원팀은 음성, 비음성 정보 모니터링, 불건전정보신고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음성, 비음성 정 보 심의위원 회의 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홈페이지 오픈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4월말이면 인터넷에 새집을 갖게 된다. 그동안 윤리위원회는 천리안 등 국내 PC 통신망 에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표어 공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표어를 공모한다.

이번 표어 공모는 정보 이용자 및 사업자들의 정보 통신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불건전 정보 유통방지를 통해 건 전한 정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3월 17일~4월 16일까지 한달간 천리안 등 국내 PC 통신망을 통해 실시된다.

표어 공모에 참여하려면 20자 이내의 표어를 만들어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로 편지를 쓰거나 어느 화 면에서나 go ECO해서 ‘정보문화 건전화’를 위한 한마디’ 코너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우편접수도 받는다.

○ 표어 공모 내용 : 정보통신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를 통해 건전한 정보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내용

○ 응모기간 : 3월 17일~4월 16일까지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시상내역 : 최우수작 1편 100만원, 우수작 2편 각 30만원, 가작 4편 각 10만원

○ 접수처 및 방법 :

1) 통신 : 천리안(ZPMCCP91), 하이텔(ICEC13), 나우누리(ICEC13), 유니텔(ICEC13)로 편지를 쓰거나 어느 화면에서나 go ECO해서 ‘정보문화 건전화를 위한 한마디’ 코너에 접수

2)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0-1 세라빌딩 16층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표어 공모 담당자앞(우 130-010)

○ 발표 : 4월 24일(불건전정보신고센터 및 개별 통보)

○ 문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화 5131-137, 117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에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 통신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캠페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소개, 정보 통신 윤리 해의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정보 통신 윤리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갖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정보 통신 윤리 관련 활동을 전세계에 알리고, 각국의 정보 통신 윤리 관련 단체 및 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에 정보 통신 윤리 의식이 정착돼 건전한 정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 쓸 계획이다.

정통윤 홈페이지는 시험 기간을 거쳐 5월에 정식 오픈되는데, URL은 www.icec.or.kr이다.

재택 모니터링 봉사자 운영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PC 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건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서비스 업체별로 일반 이용자를 활용한 재택 근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첫 시행에 들어간 재택 근무 모니터링 제도는 재택 근무 모니터링 요원이 불건전 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게시판, 토론실, 온라인 장터, 컴퓨터 문단, 자료실, 성인방, 인터넷 코너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는 것.

이들은 매일 일정 시간 통신망에 접속해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모니터링 된 결과를 정통윤 사무국에 보고하고 있다. 사무국은 이를 토대로 각 통신사에 조치 요구를 통해 불건전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정통윤은 재택근무 모니터링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며, 모니터링 자원 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통윤은 청소년들의 불건전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학부모나 교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재택 모니터링 자원 봉사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5131-133로 하면 된다.

제 1차 INFO-ETHICS 국제 회의 참석

유네스코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주최한 제 1차 INFO-ETHICS 국제 회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주현 비음성심의위원장과 강성민 부장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유네스코 정보통신위원회 주관의 제 1차 정보 윤리 관련 국제 행사로 56개국의 약 200명이 참석, 인터넷의 미래, 정보 보안, 사생활 침해, 정보의 자유,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 회의에 참석,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알리고, 국제적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이 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리위원회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 정립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식지 <정보통신윤리>창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 통신 윤리 의식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지 4월 창간호를 4월에 낸다.

5×7배판 형태의 8면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윤리>는 계간으로 발행되며, 정통윤 소식, 국내외 정보 통신 윤리 동향,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추천합니다. 심의 규정 내용을 알아봅시다. 건전한 정보 통신 윤리를 정착시킬 수 있는 캠페인 기사 등으로 꾸며진다. ●